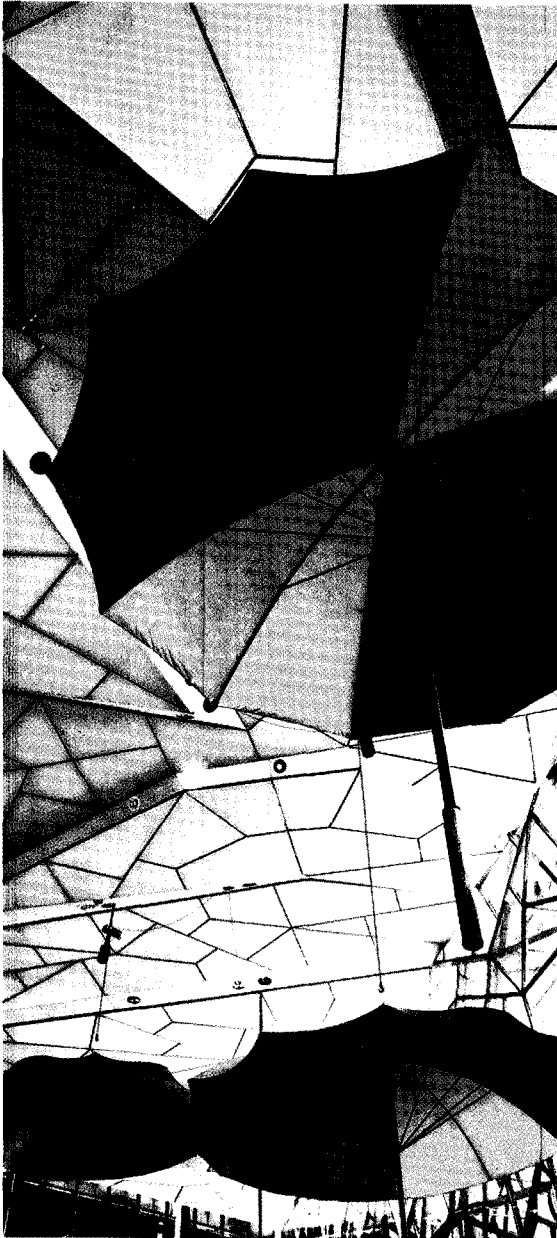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우산·양산의 소비자 동향



김용오 공업연구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영국

- 양산의 본가 영국에서 「남자는 크게, 여자는 작게」가 트렌드
- 영국의 우산 유래는 18세기 중반의 비오는 날 런던 거리에서 여행가 조나스한웨이가 큰 원모양 천의 중앙에 1개의 대를 꽂은 형태가 최초
- 그 후 양산과 중산모의 조합은 영국 신사의 대명사로 고착됨
- 영국 남성은 골프코스에서 사용하는 큰 우산을 선호하고 여성은 예쁘고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경향

이탈리아

- 중세의 양산 문화의 중심지에서 선텐 천국으로 변화
- 양산은 중세 이탈리아 여성들의 지위와 부의 상징물로서 귀족들의 딸들은 시집갈 때 혼수로 양산을 지참하였음
- 유럽의 양산문화는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영국 등으로 전파됨. 그러나 요즘 이탈리아인들은 선텐을 좋아하여 양산은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우산을 사용

오스트리아

-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리한 접이 우산이 인기
- 오스트리아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비가 적으나 계절에 따라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음.
- 여름 잘츠부르크에서는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매일 휴대하기 편한 아담한 접이 우산이 인기

제품안전 특집기사

독일

- 접이 우산의 원조 독일에서 우산 휴대는 만일의 “보험”
- 독일은 1928년 ‘한스 하우프트’가 접이 우산을 최초로 개발하고, 「쿠니르프스」사가 세계최초로 생산한 우산의 명문 기업이 있음
- 유럽 전체에서 독일 메이커인 「쿠니르프스」사는 접이우산의 대명사
- 독일은 기후 특성상 우산을 꼭 필요치 않으나 갑자기 내리는 비에 대비하여 항상 이 접이우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님

프랑스

- 프랑스 : 시공을 초월한 패션의 멋진 꽃이 피는 거리의 우산
- 프랑스의 양산은 1533년에 오를레앙공(후에 앙리 3세)에게 이탈리아의 메디치가에서 시집은 카트리느드 메디치가 혼수로 들고 온 것이 시초
- 그 후 상류계층사이에서 양산이 대유행하여 장식을 많이 한 다양한 모양이 등장
- 비닐과 천을 교대로 맞대어 참신한 색조가 예쁜 우산 등 파리에서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

중국

- 여성은 하얀 피부가 생명, 두꺼운 천의 우산으로 햇살 완전차단
- 중국에서는 양산도 두껍고 진한 “우산”을 애용하여 강렬한 햇살을 차단함.
- 우산은 압도적으로 접는 타입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날씨로 인하여 휴대가 편리한 아담한 접이 우산이 인기
- 지금의 우산 색상은 단색중심이나 점차 외국의 영향을 받으면 디자인과 색상 등이 화려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

- 소비자 패턴의 양분화 (고급선호 vs 실용파)

-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 사용 기록은 고조선(위만조선, 기원전 2세기)시대 유물에서부터 나타나며, 이후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까지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함. 사용계층은 주로 지배계급에 국한되었으며, 사용형태는 대부분 우산과 양산을 겸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현대의 소비자들은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독특한 색상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함. 가격의 경우 5천원~8천원의 가격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저렴한 제품과 고급 패션제품을 찾는 소비자 패턴으로 나뉘고 있음

일본

- 양산 문화의 전성시대, 화려함과 기능성을 동시 추구
- 본격적인 일본 양산 문화는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서민사이에서도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주목을 받게 됨. 양산의 제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부흥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며, 비가 많이 오는 일본의 기후 때문에 일찍이 우산 산업이 발달함
- 자수양산, 레이스양산 등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양산, IT우산, 소형 경량화 우산 등 각종 기능이 들어 있는 우산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일본은 우산·양산의 전성시대에 걸맞게 판매원에게 ‘엄브렐러 마스터’ 자격제도를 ‘07년부터 시행하여 2차례의 인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합격자 누계 500여명을 배출하여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



● ● 우산 양산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안전성 조사 결과

가. 시중 유통 우산·양산의 불량제품 발생에 따라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기본사항

- 전체 응답자 2,18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우산·양산에 대해 설문조사
- 응답자들의 제품 구입처는 마트(34%), 백화점(14%), 편의점(12%), 기타(40%) 순이며, 선호 형태는 3단(38%), 2단(33%), 1단(26%), 4단우산(3%)순으로 나타남
-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디자인(29%), 색상(22%), 가격(18%), 품질(17%), 기능(14%) 순이며, 선호 가격대는 5천원 이상~8천원 미만(49%), 8천원 이상~1만2천원 미만(29%), 5천원 이하(17%), 1만2천원 이상(5%)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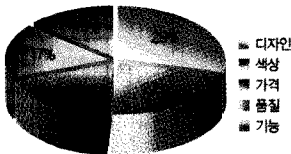


표 1 우산·양산 구입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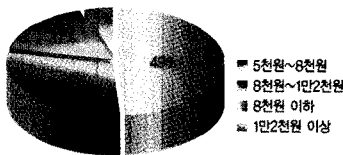


표 2 우산·양산 선호 가격대

품질사항

- 응답자의 77%가 우산의 품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복수 응답)
 -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이 쉽게 휘어지거나 살의 부러짐(86%), 우산 캡 이탈(85%), 살끝 캡 파손·이탈(82%), 살끝 실밥의 끊어짐(80%), 스프링 장력이

약해 접혀짐(76%), 우산 천 이음부 재봉불량(68%), 손잡이 불량(68%), 누름버튼 고장(12%), 살의 녹 발생(12%)순으로 응답

나. 우산·양산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불만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사관되고 있는 28개사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17%) 제품은 KS표준에 적합하였고, 50개(83%) 제품은 부적합으로 나타남

- 가격대별로는 1만원 미만 제품의 94.7%, 10,000원 이상~15,000원미만 제품의 78.3%, 15,000원 이상 제품의 77.8%가 KS표준에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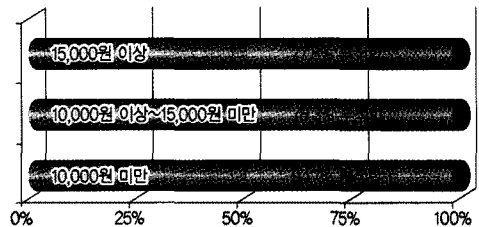


표 3 가격대별 KS표준 적합여부

- 15,000원 이상의 제품과 1만원 이상~1만 오천원 이하의 제품에서 살의 치수, 도금 두께 등에서 부적합
- 5,000원 이상~10,000원 미만의 제품에서도 살의 치수, 대의 치수, 도금 두께 등에서 부적합

KS 이외의 시험(구조안정성 및 자외선 시험) 실시 결과

- 구조안정성 시험을 위해 우산을 바람의 방향으로 45° 기울여 태풍주의보 수준의 바람세기인 풍속 14m/s(육상)에서 구조안정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에서 살대가 부러짐
- 양산 18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자외선 차단율이 고가 제품은 평균 93.1%(88.6%~96.4%), 중가 제품은 평균 90.7% (84.8%~96.6%), 저가 제품은 평균 91.5%(79.8%~98.8%)로 나타남